

2005 베니스비엔날레 최연소 작가 문성식, 삶에 대한 '알곳은 세계' 공개

07 March, 2016 | 왕진오 기자



▲문성식 '숲의 내부'. 35x27cm 캔버스에 아크릴 2015.

알 수 없는 세계의 풍경과 함께 그 안을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을 담은 드로잉을 펼치는 문성식(36)의 개인전이 9일부터 두산갤러리 서울에서 진행된다.

문 작가는 2005년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전시에 최연소 작가로 참가한 후, 감성적이고 사실적인 회화를 선보여 왔다.

그의 그림은 세상과 그 안을 살아가는 인간에 대한 관심과 애정, 궁금증으로부터 시작된다.

시골 고향집에서 치러졌던 할머니의 장례식 풍경, 형과 함께 했던 낚시, 겨울날 산책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작은 새 등 소소한 일상적 경험들이 세밀하고 뽀뽀하게, 때로는 거친 선과 간결한 형태로 그린다.

이번 전시에서 문성식은 자연과 인간세계의 무질서하게 뒤섞여 돌아가는 세상의 모습을 보여준다.

4m 정도로 길게 이어지는 화폭에는 그가 직접 보거나 인터넷 등에서 건져 올린 자연의 조각들로 새로운 세계를 구성한다. 그리고 화면 위에 커다란 대지 위에는 그가 보고 이해한 현상들이 섬세하게 펼쳐진다.

흐린 흑색 물감으로 잡아낸 의미심장한 순간들은 평범하지만 보편적인 인간의 삶에 대한 사유를 이끌어낸다.

전시는 4월 2일까지.